[창세기 24-2] 방주로 들어가라

[본문] 창7:1~12
하용조 목사 / 1998

방주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좋을 것 같아 보였던 결혼생활도,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천국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방주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이 방주 안에는 노아가 드리는 예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배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는 기적의 7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7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예배하는 7일입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혈육있는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7일 동안 방주 안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동물을 모두 방주 안에 넣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자연법칙이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상식과 이성으로는 심판이 온다는 말을 믿을 수 없고 일주일 안에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법칙과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쉬운 일입니다. 개미떼를 보면 먹이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을 잘 맞추어서 지나갑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떼도, 꿀을 따는 벌도 정확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한 순간에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일 노아가 동물을 잡아 방주 안으로 넣겠다고 시작했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해결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때가 되자 방주 앞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그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그저 힘이 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쁘고, 쉽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무게의 균형을 맞추어 1층과 2층과 3층으로 나누어 자리잡았습니다. 기온이 낮고 햇빛고 없고 산소가 부족하면 동물들은 동면을 취합니다. 방주 안의 동물들은 1년 동안 동면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 안의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권념했다'라는 단어는 '기억했다' 혹은 '간섭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의 동물들을 간섭했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기가 힘이 듭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도, 결혼할 자녀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방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방주 안이 복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방주 안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실 방주 안은 그렇게 행복한 장소는 아닙니다.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고작 1년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방주는 의지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빠르게 혹은 늦게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만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의 법칙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은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이 끌려 다녔다'라는 고백입니다. 인생 여정 동안 회사에 의해, 어떤 사람에 의해 평생 노예처럼 끌려다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허무하다'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운전한 것 같지만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배를 운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앞을 우겨쌌더라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아니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직장문제도, 자녀문제도, 이웃간의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따라 다니지 말고 따라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방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기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 영적인 법칙과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6 ~ 9 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당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 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 일 동안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에게 미리 총리대신이 되기 위한 각본이라며 미래의 일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사환에게 지중해 저편에 구름이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실하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지만 많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갈등과 의심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 기도했을 때 지중해 저편에 손바닥 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구름은 폭풍과 비바람을 몰고 오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１０절을 보십시오.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비 한방울도 오지 않더니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의심과 갈등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있을 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있다면 고난이 따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박주 소리가 없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１１~１２절을 보십시오.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이 창을 열고 물을 쏟아 부었고 바다와 땅의 경계가 흐트러졌습니다. 사십 주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방주를 짓는 1백 ２０년 동안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수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칙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속삭임이나 세상사람들의 이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전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의한 세계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깨어있어 게으르지 말고, 방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 방주를 예배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２천 / 1 만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환율이 올라도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